

컬처

소유의 개념을 바꾸는 NFT, 그게 뭐야?



지난 8월, 9,000만 원짜리 대형 진달래 그림이 불탔다. 언뜻 예술품이 화재로 훼손된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의도적인 행동이었고, 불을 붙인 사람이 작가 본인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화단의 중진 작가로 주로 '진달래'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온 김정수 작가가 그림을 태워버린 것은 디지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더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100호짜리(162×130cm) 대형 작품은 총 300개의 고화질 이미지 파일 한정판 NFT로 발행됐고, 판매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초반 품번 20여 점이 판매돼 전 세계 NFT 수집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작가는 "시각예술을 NFT화하는 작업은 이 시대를 주도할,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란 판단에 망설임 없이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수 작가는 진달래 그림을 그린 뒤 바로 태워버리고 NFT 파일만을 남겼다. 예술과 소유의 개념을 다르게 보게 만든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 ©김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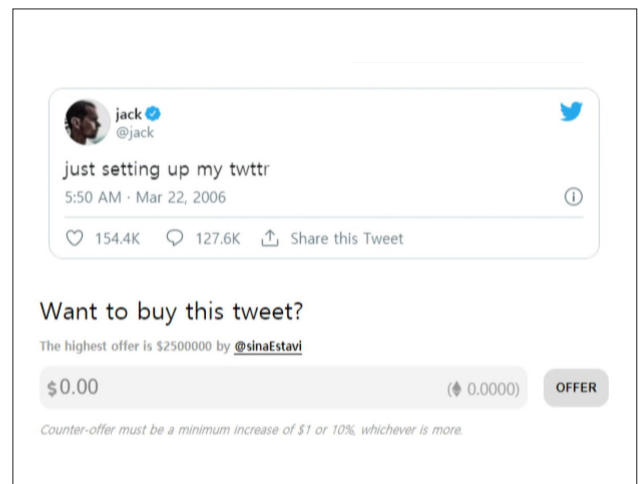
시각예술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고 음악, 웹툰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도 NFT화 되고 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손잡고 BTS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정판 NFT로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전통적인 소유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 NFT, 도대체 정체는 뭐가 될까?

소유권과 희소성을 더한 디지털 파일

NFT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 자산이다. 다만 가상 화폐와는 다르게 내 소유권을 보장하는 권리 증명으로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블록체인은 특정 NFT의 소유권자가 나 자신임을 입증하는 온라인 등기소 역할을 한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자가 기록되듯이, NFT라는 디지털 파일을 낙찰받으면 블록체인에 내 정보가 등록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NFT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디지털 파일은 그 특성상 복제가 무한히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NFT는 블록체인에 소유권자를 기록해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히 원본 파일의 희소성 덕분에 미술품처럼 거래가 이뤄진다. 김정수 작가의 그림처럼 여러 개로 발행된 NFT라 하더라도 작품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블록체인 주소가 삽입돼 있다.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콘텐츠면 어느 것이나 발행할 수 있다. 동영상, 음원, 사진 등의 디지털 원본에 블록체인 주소 삽입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NFT로 발행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20대에 쓴 입사 지원서,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첫 트윗도 NFT로 발행되어 거래됐다. 심지어 DNA 염기서열 분석 방법을 개발한 조지 처치라는 과학자는 자신의 계놈을 NFT로 만들어 내놔고, 아르헨티나의 디자이너 안드레 리지너는 메타버스에 배치할 수 있는 가상 가구 열 조각을 NFT로 팔았는데, 이 중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된 가구는 우리 돈 약 8천만 원에 거래됐다.



잭 도시 트위터 CEO의 첫 트윗도 NFT로 제작돼 한화로 약 32억 원에 팔렸다. ©트위터

팬심과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재테크까지, 일석이조



사람들은 왜 NFT에 열광하고 적극적으로 구매할까?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팬심이다. 아이돌 굿즈를 생각해 보라. 아이돌 팬들은 수량이 한정된 포토카드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고

무한도전의 무야호 동영상 클립이 NFT로 제작돼 비싼 값에 팔린 것은 NFT가 팬심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MBC 유튜브 캡처

NFT로 만들 디지털 파일과 변환 비용으로 이더리움 또는 클레이튼 같은 가상 화폐를 준비하면 된다. 플랫폼 사이트에서 'NFT 만들기' 버튼을 눌러 NFT로 만들려는 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작'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이후 NFT 파일을 거래소에 등록하는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누구나 NFT를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인지도 있는 작품이 거래되는 유명한 NFT 거래소에 작품을 등록하려면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증된 창작자만 작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NFT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다. 따라서 NFT를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NFT의 가치 역시 현실 시장과 마찬가지로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소재를 활용했는지, 어떤 커뮤니티가 지지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NFT는 부동산처럼 단위 가격이 높고 분할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팔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암호화폐가 많지 않으면 구매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글 / 권오현 칼럼니스트